

인터뷰

조계종 새 총무원장 월주스님

“개혁완성·종단화합에 주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계종 제 28대 총무원장에 선출 되셨는데 먼저 당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원로 대덕스님들과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불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지지해 준 종도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혁작업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종도들의 염원이 지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종도들의 뜻에 따라 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역대 총무원장선출이 중앙종회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였는데 비해 이번 선거는 종단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부대중의 여망을 반영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셨습니다. 선거기간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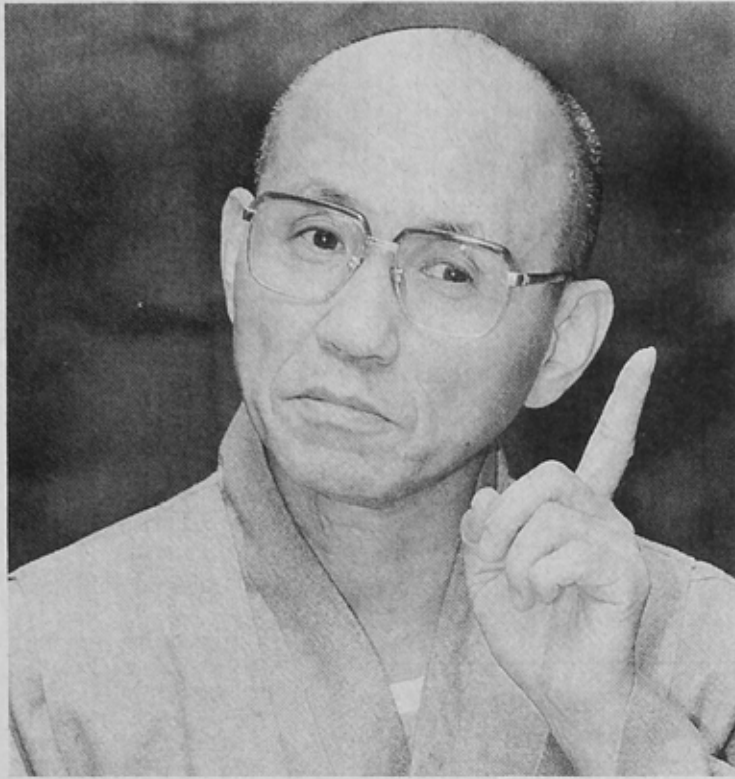
“전국을 돌며 24교구 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수행자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원장이란 직책이 탐내서라기보다, 화합종단 구현과 불교지구화 등 불교발전을 위해서라는 원력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새종단 집행부에 거는 불자들의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의 종단운영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50년대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종단 안팎의 구조적 모순과 파행적 운영을 극복하고, 7개 월동간 개혁회의가 기초해 놓은 새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내건 △승종진작·승가위계질서 확립 △문종외식 탈피 인재등용 △승가기본교육 기관·선인승 수행기관 지원 △불교방송·텔레비전 지원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미비한 제도개선 등의 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일부 과열된 양상이 보여 불자들을 비롯 국민들이 또다시 조계종의 구악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만 다행히 큰 사고없이 원만하게 선거가 끝나 평화적 종권이양이 이루어진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경합자였던 월탄스님을 지지한



승풍진작·재정자립 위한 대작불사도 구상

1백46표라는 표도 만만치 않은 득표수입니다만. “월탄스님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의사가 수렴해 포용토록 하였습니다. 불교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내면 네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뜻의 하나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명백히 해종행위를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개혁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선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서면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멀리까지 갈 것없이 최근 선거에서만도 과문서사건 등 승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후태가 일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승가풍토가 쇠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단이 계속되는 한 개혁

작업은 꾸준히 진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단에 필요한 것이 승풍 진작입니다. 우리 수행자가 승가 본연의 청정한 삶과 도덕적인 생활을 구현할 때 재가신도들도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정정신을 지키는 일이 기본입니다. 스스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허물을 지적할 때 그 누가 따르겠습니까?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고 초발심으로 돌아가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종행위인 법정승사같은 것은 절대 금지하고 종단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틀을 세우도록 신실된 호계원의 엄정 중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승가의 전문화와 자질을 고양

키 위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교육을 단일화 하고 스님들의 노후복지문제도 종단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단운영에 있어 인사와 재정자립이 중요 관건인데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요.

“문종과 지역, 이해 관계를 과감히 탈피해 능력과 원력이 출중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습니다. 자신의 온사나 자신의 도반이 종무 행정의 책임자가 되지 못할 경우 스스로의 귀한 능력조차 감추고 마는 것이 작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능력과 원력이 있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불교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할 생각입니다. 또 불교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사찰 관료료 수입이나 신도들의 시주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생산불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족문화로서의 불교문화를 대중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대사업단’을 구성할까 합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

약 력

- ▲ 1935년 4월 16일 생 (59세)
- ▲ 1954년 법주사에서 금오스님들 계사로 시미계
- ▲ 1956년 화엄사에서 금오스님들 계사로 비구계
- ▲ 56년 화엄사에서 수선이라 10 하인거 성만
- ▲ 1958년 화엄사 불교전문강원 대학교 졸업, 69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 개운사 금강사 주지 역임
- ▲ 1980년 제 17대 총무원장
- ▲ 경실련, 자비의 전화, 불교인권위, 공추부, 평불협, 정사협, 시민단체 등 대표



관 재 환

<한국방송공사 TV기술국>

봄의 기운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던 3월, 나는 사당동 정안정사로 향했다.

정기법회 날이었다. 예정된 법문을 다 마친 스님께서는 법좌를 물리기에 앞서 “오늘 법회에 오신 신도님들, 점심공양 많이하시고, 집에 가서는 불식(不食)토록 하십시오”라고 한 말씀 더 주시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날 스님께서 주신 불식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간은 ‘불식... 오후불식’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생각만을 낚는 마음조임의

다” 하시며 법문을 잠그셨다.

말씀 중에 더운 눈물로 얼굴을 적시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스물넷 나이에 청상이 돼, 오직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철심령생을 살아오신 어머니 처지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겁고 죄스러웠다.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의지와 그 저 흐르는 세월이 악이 되어주는 길 밖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다.

위(胃)를 비우는 시간이 이십시간이 가깝고, 오후불식을 행한지 한 달을 넘기면서 부터는 오후에 무엇을 먹는다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떨어진 기운으로 종단하다실이 한 조각의 백팔참의 예쁨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간간히 잡희시간을 놀려 몸을 시험해보고 더 이상의 기운은 진하지 않았다.

느낌이 그려져인지 전에 없이 몸은 단단하고 가벼워진 것 같았고, 머리 또한 맑아져움을 느꼈다.

이 얼마나 고마운 가피인가? 요즘 나는 나의 오후불식이 끝

나의 수행이란 다짐을 새롭게 하기



‘오후 불식’은 이제 평범한 생활

시간들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자연 조식에 붙어까지 영향이 미쳤다. 부질없이 햇살을 보내고서야 무엇인가 간절한 발원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음을 알았다. 그 옛날 세존께서 발우를 드시고 탁발을 도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곁에 살다가신 수 많은 고승대덕들이 먹고 입은에 초연했음을 연상하고, 나도 감히 그들이 계신 피안의 언덕 함모퉁이에 자리하길 간절히 발원했다.

“이제부터 오후에는 불식하며 살리라!” 하는 다짐과 함께, 그날로 나는 저녁식사에 앉지 않았다.

그날 다짐 뒤의 생각은 불식으로 인해 무엇을 얻고 아니 얻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불교를 닦아가는 수행의 일면도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연유한 따름이었다.

처음 며칠은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식구들의 성화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계속되는 나의 불식에 가족 어느 누구도 동조해 주는 이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한 동안 집을 비우셨던 어머니가 돌아오셨다. 아들이 저녁 법상에서 몸을 돌린 것을 보시고는 “아! 정말 그러지 말고 밥 좀 꼭꼭 먹어라. 너 정말로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밥 안 먹으란

위해 저녁에 불 푸에는 화두를 물어 신체를 조복하고 화두를 잡는 일을 일파로 삼아, 생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따금 솟아나는 불희심은, 처음 3천배를 하던 때를 떠올려 쫓아버리곤 하였다. 일곱 시간 반쯤만 절을 하면서 “이 세상에 이보다 힘든 일은 결코 없으리... 오늘이 절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노라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절실한 뿐이었다. 오늘의 오후불식 생활을 그때와 비교하면 그저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세상사 사필귀정이라 하였거나 내 정성이 미진함은 당연한 노릇이나, 영명하게도 요즘에 와서 또 하나 간절한 바람이 생겼다. 지금의 내 몸이 태초엔 공한 몸이었거나 내 사는 동안 부디 남을 위해 살기를 영원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한번의 마음 쓰임, 한번의 참회, 한번의 염불 등이 모두가 오로지 남을 위함으로 이루어지길 참으로 원하는 바이다.

그러다가 혹 남음이 있으면 이 생애 무수히 많은 저 무정들의 성불을 위해 내 몸 쓰임 있길 발원하고, 또 발원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맑은 눈을 때, 상주불멸의 법계에 여여하신 부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먼저 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는다.

생활 속의 불교 ⑦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명에는 다 불성이 깃들어 있으니 ‘일체는 다 부처다’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남여의 차이, 학식의 차이, 출신 성분의 차이, 모습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성에는 그러한 차이가 없다.

누구에게나 자기 성품에 부처 성품이 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인 것이다. 부처의 성품은 산 넘고 물 건너 온갖 고난을 겪고 나서야 찾아지는 게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참보배가 있으니 설사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소식 가운데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도 위덕을 구축하신 부처님과 동등한 성품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에 듣는 그 어떠한 소식보다도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법의 생활의 현대학 생계학

한건의 누수 사고도 없었습니다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문인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원로
- 설립 7년 만인 93년 연간 약 46억의 공사 수주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각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목표는 국내 최고 !!

성풍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  
전화: 553-2441~3, 553-7768~9  
팩스: 553-2449